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반대

1844년 6월에 교회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다. 일리노이 주의 일부 주민들이 성도들을 주에서 몰아낼 논의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일부는 선지자를 죽일 음모를 짜고 있었다.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반대에 공모하는 자 중 일부는 교회에서 배도한 이전 회원들이었다. 1844년 6월 7일에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던 윌리엄 로와 다른 배도자들은 *나부 익스포지터*라는 신문의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들은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악화시키기 위해 이 신문을 이용하여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모략했다. 당시에 나부 시장이었던 조셉 스미스와 나부시 평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이 선동적인 신문이 시에 반대하는 폭도의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그 신문을 사회적 방해물로 선포하고 *나부 익스포지터* 인쇄기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무고하게 기소된 조셉과 하이럼

“시장과 시의회가 취한 조치[*나부 익스포지터* 파괴]의 결과로, 일리노이 주 관리들은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 그리고 다른 나부 시 관리들에 대해 근거 없는 반란죄를 뒤집어씌웠다. 일리노이 주 토머스 포드 주지사는 그들에게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 있는 법정에서 배심원들 앞에 서도록 명령했으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조셉은 카테지로 갈 경우, 자신의 목숨이 자신을 위협하는 폭도들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폭도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뿐이라고 믿고, 조셉과 하이럼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서부로 떠나기로 했다. 6월 23일, 그들은 미시시피 강을 건넜으나, 그날 늦게 나부에서 온 형제들이 조셉을 찾아 말하기를 만약 그가 카테지 관리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군대가 도시를 침공할 것이라고 했다. 선지자는 정부 관리들과 폭도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투항하기로 했다. 6월 24일,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부 시 관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카테지로 간 후, 다음 날 카테지에 있는 군 관리들에게 자진 투항했다. 형제들이 첫 번째 고소와 관련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후, 그들은 일리노이 주에 대한 반역죄로 거짓 고소되어 다시 체포되었으며, 카테지 감옥에 투옥되어 심리를 기다렸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중 선교사로 떠나 있지 않았던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 장로는 자진해서 그들과 함께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9~530쪽)

카테지 감옥에서의 순교

1844년 6월 27일, 조셉에게는 한 방문자에게서 받은 권총 한 자루가 있었다. 폭도들이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쳐들어오려 했으며, 하이럼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다 총상을 입고 숨졌다.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근처에 선 조셉이 복도 쪽으로 권총을 발사했다. 그는 총알 여섯 개 중 세 발만을 발사했으며, 이에 몇몇 폭도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자 폭도들은 반쯤 닫힌 문으로 총구를 밀어넣었고, 존 테일러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들의 총을 밀어내려 했다.

문 입구에서 물리적 충돌이 심해지자 존 테일러는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입구에서 날아온 총탄이 그의 허벅지에 날아와 박혔고, 밖에서 누군가가 발사한 총탄도 그를 명중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창문 옆 침대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세 발을 더 맞아 부상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한편, 총구가 문을 밀고 들어오자 윌라드 리차즈는 지팡이로 총을 쳐내기 시작했다.

그때 조셉 스미스는 존 테일러가 뛰어내리려던 그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다. 윌라드 리차즈가 문에서 폭도들을 막고 있는 동안, 선지자는 열린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감옥 안팎에서 날아든 총알이 선지자를 명중시켰다. 그는 창 밖으로 떨어지며 “오 주 나의 하나님!”이라 외쳤고, 이내 땅으로 고꾸라졌다. 감옥 안에 있던 폭도들은 조셉이 죽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누군가 “물론들이 몰려온다!” 하고 소리치자 폭도들은 모조리 도망쳤는데, 사실 카테지 감옥으로 오고 있는 교회 회원은 아무도 없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바치는 헌사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조셉을 잘 알고 교회 지도자로서 그와 가까이 있어 본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 선지자로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형 하이럼은 그의 곁에서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살해되었을 때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앞에서 증거합니다.

조셉은 선하고, 존경할 만하고, 고결한 사람이며, . . . 그의 사적, 공적인 인물됨은 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죽었습니다.’(*The Gospel Kingdom* [1987], 355; 또한 교리와 성약 135:3 참조)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조셉 스미스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지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히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살았던 또는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459) (“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73쪽)

